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유현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조교수)

재난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생에 걸쳐 매우 낮은 빈도로 경험하게 되는 위험이기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위험에 대처하려 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번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재난발생 이전의 삶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대를 위험사회라 한다.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 소비자는 잠재된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효과적인 재난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난관리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복구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재난 피해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재난관리는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재난관리의 목표는 이재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훼손된 환경의 보존도 이재민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킨다는 맥락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유의 참사로 기록될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파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자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5회의 현장방문과 인터뷰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40여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 150부를 회수,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름유출사고 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5점 리커트척도에 대해 평균 1.72로 나타나 태안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경험의 질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평균 4.19, 우울감은 평균 4.05로서 태안 주민들이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 정서의 측면인 활기는 평균 1.68로서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따분함은 평균 3.89로서 역시 삶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정도($m=3.38$)와 다른 일에 대한 관심($m=3.17$)도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반적으로 태안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의 질 수준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직접적으로 기름유출사고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사고 이전보다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유출 사고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5점 리커트척도형 질문에 대해 평균 4.40의 응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상에 있어서는 어지러움이 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심장 두근거림(25.0%), 눈이 아파(15.6%), 감기기운(8.6%), 피부병(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다양한 신체적 증세가 나타났다는 응답도 10.2%에 달했다. 기름유출사고가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평균 4.59로서 신체적 건강보다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증세를 살펴보면, 마음의 불안이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희망이 없어짐(30.4%), 화가남(16.7%), 마을을 떠나고 싶음(8.0%), 살고 싶지 않음(4.3%)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증세도 5.1%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주민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번 허베이스피리트 호 기름유출사고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체 응답자의 55.7%가 사고 이후 이웃집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응답하였고, 30.2%는 약간 안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사고 이후 이웃집과의 관계가 나빠졌는가에 대해 평균 4.36을 보임으로써 사고로 인한 주민간 갈등 및 신뢰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사이가 나빠진 이유로는 별 문제는 아닌데 예민해져서(35.7%), 형평에 어긋난 배상 때문에(34.1%), 방재 및 태안 재건방법에 대한 의견차이로(17.8%), 사고 피해 정도가 달라서(8.5%), 기타(3.9%)로 나타났다. 사고는 가족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유출사고 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가족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다는 응답이 38.5%나 되었고, 약간 불편해겼다가 26.4%로 나타났다.

넷째, 사고 후 소득변화 및 생활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2%가 사고 이후 소득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단 2명뿐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기름유출 사고 후 생활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 매우 나빠졌다가 61.7%, 약간 나빠졌다 29.5%, 별 차이 없다는 6.2%로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고 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이나 수입이 언제쯤이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89.3%가 기약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내년 가을과 여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이 각각 4.7%, 내년 봄은 1.3%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태안지역의 장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21.6%, 별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35.8%로서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었으며, 약간 발전할 것이다(12.8%), 매우 발전할 것이다(4.7%)는 긍정적 기대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평가하는 사고 이후 삶의 질 수준은 사고 전에 비해 1/5 수준이라는 응답이 47.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으며, 사고 전에 비해 1/3 수준이다가 24.3%, 절반수준이다 24.3%로 나타났으며 사고 전이랑 비슷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4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생계비의 지속적 지원(31.8%)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8.1%), 다른 일자리의 제공(4.7%), 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 사업(1.4%)의 순으로 나타났다.